

“참회·희망 담은 음성공양 올려요”

청원 석문사 청주교도소서 찬불가 대회...12팀 참가 실력 발휘

7월 22일 청주교도소에 찬불가가 울려 퍼졌다.

청원 석문사(주지 혜전)가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주최한 '청주교도소 수용자 찬불가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찬불가 대회에는 총 12팀이 참가했다. 12팀 모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연등' 등 부처님의 공덕을 다룬 노래를 부르며 실력을 겨뤘다.

대회에 앞서 혜계종 총무원장 법진 스님은 법어를 통해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며 '여러분들도 자신이 처한 삶을 비판관 하지 말고 이곳에 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고, 찬불가를 배우게 된 것 등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느 노래 대회처럼 춤과 환호는 없지만 무대에 올라 노래 부르는 수용자들은 부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을 담고 노래 부르기에 집중했다. 객석이 앉아 무대를 지켜보는 재소자들도 뜨거운 박수로 응원했다. 재소자들이 각 취업장(교도소 내 일터) 별로 팀을 구성해 출전한 찬불가 대



사진설명

회는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성직은 중요하지 않았다. 노래로써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찬불가 대회는 커다란 의미를 주었다. 웃음과 박수 속에 '실력발휘'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부상으로 받은 라면에 담긴 지역 스님들의 자비에 감사했다. 불자가수 오영민, 최석중, 임창희를 초청 선보인 멋진 무대도 특별한 선물이었다.

혜종 총무원장, 혜광 스님(자비실천 운동본부), 현문 스님(광명선원 주지), 혜철 스님(현대불교 충청지사장), 법신 스님(대암사 주지) 등이 심사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혜전 스님은 "찬불가를 부르는 수용자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고, 대회의 열기에 너무 기뻛다"며 "힘이 닿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청주교도소에 찬불가 대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내 손길 필요하다면 어디든...”

2년째 찬불가 경연대회 개최한 혜전 스님

'청주교도소 수용자 찬불가 경연대회'를 2년째 주최한 혜전 스님은 '교도소 교화' 사업 뿐만 아니라 '미혼모 지원 센터',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한 '효(孝) 잔치' '떡국 봉사' '농촌 봉사' '결혼가정·독거노인 돕기' 등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름 받아 주지 못했다

“그 당시 돌리보낸 미혼모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을 지나다 우연하게라도 '미혼모 지원 센터'를 알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 센터로 등록해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스님은 앞으로 청원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혜전 스님은 "내 손길 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 몸이 소멸되지 않는 한 모두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 논산 지장정사

“봉사는 ‘끝’이 없어요”

캄보디아, 씨엠립 스라스랑초등학교 급식소, 새끼 돼지, 국수, 경로잔치, 노인 요양 시설, 장학금, 급식비...

논산 지장정사에서 통하는 '화두' 같은 단어들이다. 지장정사는 최근 캄보디아 지원 사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2007년 12월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에 있는 스라스랑 초등학교에 급식소를 설치했다. 급식소 건물을 짓는 비용만 약 5000만 원이 들었다.

지장정사 주지 덕산 스님은 "우연한 기회에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유적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곳 주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그 당시 더욱 놀랐던 것은 550여 학생 중 120여명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 '농업 공동경작'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장정사는 캄보디아 봉사를 진행하며 교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고, 카페를 운영해 국내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등 중간자 역할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장정사를 통해 캄보디아에 봉사를 다녀간 사람만 해도 200여 명.

지장정사의 봉사는 캄보디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04년부터 목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 '국수 나눔 운동'을 열고 있다. 국수 봉사는 ▲월요일-부여시 ▲화요일-계룡시 ▲수요일-논산시 ▲금요일-공주시 ▲토요일-대전역 ▲일요일-대전 유천동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포항이나 인천 등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캄보디아 초교 급식소 설립·책상 지원

국수 나눔운동·독거노인 도시락 배달도

그 후 원력을 세운 덕산 스님은 스라스랑 초등학교에 급식소를 설치하고 매 분기 1000여 만 원을 지원해 아이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고 있다. 스님은 "현재 유가 상승에 따른 식자재비 상승 때문에 예전에 비해 더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다른 초등학교에 무료 급식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급식소 설치를 위해 7월 30일 캄보디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장정사는 캄보디아의 오지 학교에 책·결상을 제공해 주고,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학교 보수공사까지 도맡아 한다. 게다가 어린이들 뿐 아니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역민들을 위해 급식소 직원 채용, 극빈가정 백미 지원, 새끼돼지 분양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도와 캄보디아가 연계

으로 찾아가기도 한다. 거동이 불편해 집에만 계신 어르신들에게 매일 150개의 도시락을 나눠 주고 있다.

지장정사의 보살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장정사는 국수 봉사를 쉬는 목요일마다 지역의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빨래를 비롯한 청소, 보수 등 봉사를 쉬지 않고 하고 있다.

또 매년 결산 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의 경우 15군데 학교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 잔치와 노인 요양원, 부모의 이혼으로 시골 할머니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봉사 템플스테이 등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 손효선 기자

법주사 후불탱화 문화재 지정예고



충청북도에는 7월 18일 법주사(주지 노현) 대웅보전후불도(大雄寶殿後佛圖·사진)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 했다.

법주사 대웅보전 후불도는 5폭 탕화로 1917년 제작된 '아미타불도'와 1897년 그려진

'아미타불도', '사천왕도'(각각 2폭)로 구성돼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조선 후기 도내 일원에서 화사유파를 형성한 금호당(錦湖堂) 우파의 작품양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효선 기자

대전시 종무팀 신설 종교계 시정참여 문

대전시(시장 박성호)가 시청 내 종무팀을 신설해 종교계의 시정 참여 기회를 마련했다. 대전시는 7월 7일 시청 문화예술과 내에 종교업무 담당하는 종무팀을 신설, 지역 내 종교지도자 면담과 전통사찰 보존, 종교계 문화 행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종교계와 유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교계는 앞으로 종교법인 설립, 교회·사찰·성당 등의 건축행위 인·허가, 문화예술 행사 등에 대한 업무 처리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전충남종교인평화회의 의장 진공 스님은 "사회적으로 종교편향 논란이 있는 만큼 종교계의 시정 참여 과정에서 종교간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불교 폄하·왜곡보도 막는다”

충북불교언론보호위 구성...위원장에 노현 스님

충북불교도불교총연합회(회장 노현)가 올바른 불법 홍보를 위한 '충북불교언론보호위원회'(이하 언론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21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임명장을 전달했다.

노현 스님(법주사 주지)을 위원장으로 혜철 스님(대성사 주지)이 사무총장을 맡았다. 언론보호위원회로는 노현 스님(용화사 주지) 도천 스님(미타사 주지) 설곡 스님(수도원 주지) 현진 스님(관음사 주지) 혜광 스님(금수사 주지) 혜성 스님(자재암 주지) 화산 스님(명장사 주지) 등이 활동한다.

언론보호위원회는 방송과 언론이 부처님 말씀을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각종 불교 정보를 제공하

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교의 폄하·편파·왜곡 보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불교포교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불교를 폄하·편파·왜곡하는 보도가 나올 경우 상시 모임을 갖고 대처하도록 결의했다.

회장을 맡은 노현 스님은 "누군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활동 중 불교 폄하 내용이 보도될 경우 해당 지역의 교구 본사 또는 불교총연합회에 연락해 조취를 취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사) 한국결혼상담소협회에서 최첨단 맞선 프로그램 출시!



사단법인 한국결혼상담소협회 고문 혜철 대성사 주지스님

스님출연 TV프로그램

- KBS** 아침 마당 VJ특공대 무한지대Q
- MBC** 화제집중 김미희의 세계는 그리고... 6mm 세상담형 손석희의 시선집중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생방송 투데이
- YTN** 전국 네트워크
- 불교TV** 아름다운 사람들
- 불교방송** BBS 초대석
- 충북방송** 충북, 충청인

국내, 국제 결혼정보업체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WedManager 2008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프로그램의 기능

- 계약관리
- 회원관리
- 희망정보관리
- 회원매칭관리
- 성혼자관리
- 불량회원관리
- 주소록관리
- 매니저관리
- 홈페이지정보관리
- 전국결혼상담소 연결기능 등!

News !!!

매일 100개 이상의 공유 프로필이 전국에서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단 한개만 입력해두셔도 맞선 요청 전화가 달려 옵니다!!!

주문 및 전화문의

043-732-5560
010-9422-8453
뉴페이스결혼소프트웨어